

만6세와 만9세 아동이 선호하는 그림책의 장르에 대한 질적 연구

Qualitative Research of Picture Books Preferred by 6 Year Old and 9 Year Old

박소윤*, 김민정**

동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So-Yun Park(parksoyun1230@hanmail.net)*, Min-Jung Kim(chulsucomeon@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에 기반 하여 장르를 중심으로 연령별로 아동이 좋아하는 그림책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만6세와 만9세 아동을 면담하고 최종 34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약호화의 과정을 거쳐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만6세 아동들이 선호하는 그림책은 옛이야기 그림책, 이야기 그림책, 국내 시 그림책, 정보 그림책 순으로 나타났으며 번역 시 그림책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흥미로운 줄거리와 잘 짜인 플롯을 좋아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만9세 아동들이 선호하는 그림책은 이야기 그림책, 옛이야기 그림책, 국내 시 그림책 순으로 조사되었고 정보 그림책과 번역 시 그림책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문학적 요소를 폭넓게 탐색하고 그것을 재미요소로 여겼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아동들이 특정 그림책 장르를 선호하는 이유를 밝히고, 연령별로 그림책 장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그림책 | 그림책 장르 | 그림책 선호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favorite picture books by age according to genre. For this purpose, children of 6 and 9 year old were interviewed from October 2015 to January 2016, and the final data of 34 children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inductive coding qualita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icture books preferred by 6 year old children appeared in the order of folktale picture books, story picture books, korean-domestic poetry picture books, informational picture books, and they didn't prefer korean-translated poetry picture books. They tended to like interesting story and well-constructed plots. Second, picture books preferred by 9 year old children were surveyed in the order of story picture books, folktale picture books, korean-domestic poetry picture books, and they didn't prefer informational picture books and korean-translated poetry picture books. They explored literary elements extensively and considered them as interesting factor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revealed reasons why children of different ages prefer particular picture book genre, and proposed ways to use picture book genres widely by age.

■ keyword : | Picture Book | Picture Book Genres | Preferences in Picture Book |

I. 서론

글과 그림이 결합하여 의미를 형성하는 그림책은 어린이가 의식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최초의 문학적, 예술적 세계이다. 또한 그림책은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과학 등의 다양한 학문적 세계를 망라하여 담고 있어 미적 경험과 함께 교과 교육적인 효용을 지니기도 한다 [1]. 이와 같은 유익 때문에 그림책은 유아동의 놀이와 교육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림책이 유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유익은 폭넓게 검증되었고, 그림책은 점점 어린이들의 삶과 그들의 교육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2].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림책의 다양한 효용은 그림책의 독자인 아동이 그림책을 즐기는 바탕 위에서 실현된다는 점이다. 아동 독자가 그림책을 보는 목적은 즐거움이고, 발달적 혹은 교육적 성취는 그에 후행하는 부차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아동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좋아하는 그림책의 특성을 다각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동에게 보다 즐겁고 유익한 그림책을 제공하기 위해 그림책에 대한 아동의 선호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그림책이 다양한 의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복합 매체이기 때문에 아동이 선호하는 그림책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크게 세 갈래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그림책의 그림 특성에 대한 아동의 선호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 유아들은 장르를 불문하고 그림책에서 글보다 그림에 더 관심을 보인다[3]. 따라서 그림을 그림책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아동의 선호를 살핀 연구들은 의의가 있다. 유동관(2011)이 유치원생 7세 어린이들이 사실적인 그림보다 환상적인 그림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보고한 것이 대표적이다[4]. 김민정(2014)은 스테디셀러 그림책들에는 재현적인 그림 보다는 작가적이고 만화적인 그림의 그림책이 많다는 점을 밝혀 사실적인 그림에 대한 선호가 낮다는 것을 추론하였다[5]. 그러나 Sipe(2001)의 지적대로 그림책에서 작가는 여러 표현 양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6], 그림책의 그림은 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속에서 해석되고 수용된다. 때문에 그림책에 대한 아동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림 특성 외의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책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선호와 그림책 자체에 대한 선호의 관계도 파악되어야 할 문제이다.

두 번째는 아동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다. 동반 읽기는 그림책의 독특한 향유 방식이다. 그림책을 함께 읽는 성인과 아동은 그림책을 매개로 활발하게 상호작용한다. 이에 근거하여 김선옥 외(2006)는 부모 설문문을 통해 만 3~6세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의 목록을 수집, 분석하였다. 아동들은 전래동화, 환상동화, 사실동화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7]. 이문정 외(2013)는 만 3~5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그림책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남녀 유아 모두 환상 그림책을 가장 선호하며 남자는 정보 그림책을, 여자는 사실 그림책을 선호한다고 하였다[8]. Saracho와 Spodek(2010)은 그림책을 읽는 모임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읽어줄 책으로 고른 그림책들의 목록을 토대로 환상 그림책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정보책이나 옛이야기 그림책, 시 그림책이 인기가 없었음을 보고했다[2]. 이를 통해 아동이 선호하는 그림책에 대한 단서를 추론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선호의 이유를 파악할 수 없어 일관성 있는 해석이 어렵다.

세 번째는 서로 다른 그림책에 대한 선호를 아동에게 직접 물어보는 연구들이다. 김민정(2003)은 만 3~5세 아동에게 사실 그림책과 환상 그림책 여러 권을 반복적으로 읽어주고 재미있었던 그림책을 선택하도록 했다. 아동들은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환상 그림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9]. 김정화(2009)의 연구는 만 4~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여러 그림책을 도서 영역에 비치하고 충분히 탐색하도록 한 후 아동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으로는 사실 그림책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옛이야기 그림책이 가장 적게 선택되었다[10]. 주제와 장르가 다양한 그림책을 제공하고 좋아하는 그림책을 고르도록 한 Mohr(2006)의 연구에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동물물 다룬 정보 그림책을 선택했다[11].

이와 같이 일관된 경향성을 찾기 힘든 연구의 결과들은 몇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는 선호 반응이 그림책의 총체적 실체에 대한 인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책의 다양한 구성 요소 중 한 가지가 특별히 마음에 들어서 해당 그림책을 좋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이 귀여워서’와 같은 직관적인 느낌이나 ‘내가 갖고 있는 책과 비슷해서’와 같이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이유로 그림책을 좋아할 수 있다. 둘째는 아동이 선호하는 그림책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그림책의 전체적인 특성을 설명하든, 그림책의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든 그림책의 선호와 관련된 요인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조건들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림책의 복합적인 특성 상 관형이나 종이 질감과 같은 물적 특성을 비롯하여 작가나 출판사 같은 외적 특성, 일러스트레이션 표현방식이나 주제 [12][13], 등장인물 등의 내용적 특성 등 그림책의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무수히 많다. 따라서 아동이 좋아하는 그림책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의 결과들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에 기반하여 장르를 중심으로 아동이 좋아하는 그림책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림책은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체로 물적 특성이나 표현 양식, 내용 특성 등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 이상의 총체적 실체이다. 장르는 이러한 총체적 실체를 아우르고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상위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글자를 읽지 못하는 연령의 아동들도 장르가 다른 그림책에 대해 그 장르에 적합한 태도를 갖추고 수용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14]나 장르가 다른 그림책을 읽어주는 성인이 그림책의 장르적 특성과 관련한 발문을 사용하고, 성인과 아동이 장르에 적합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관찰한 연구[15]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장르는 문화적 관습의 구성체이며 텍스트 해석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회적 유산이다. 장르는 합리성, 즉 구체적인 유형으로서의 규칙성을 지닌다[16]. 장르는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고, 제시 형식

을 결정한다[17]. 작가는 제시 방식에 적합한 텍스트를 생산하고, 독자는 텍스트가 읽히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향유한다. 이렇게 그림책의 작가와 독자는 장르적 틀을 합의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책의 작가와 독자가 합의한 장르의 틀은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그림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그림책의 장르를 그림책이 지닌 구성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어떠한 속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작가와 독자의 합의체인 것이다.

장르라는 커다란 개념을 기준으로 하지만 아동의 직접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아동이 좋아하는 그림책의 특성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이 미리 분석의 틀을 확정하지 않고 ‘유연한 구조’[18]로 접근하여 그림책과 관련하여 아동이 보이는 모든 반응을 유의미한 단서로 간주하고 편견 없이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아동에게 즐겁고 유익한 그림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

연구 참여자는 그림책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있고 성인과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 6세와 9세 아동으로 하였다. 수집한 자료들은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로 정리되었다.

1. 만 6세 연구 참여 아동이 선호하는 그림책의 종류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어떠한가.
2. 만 9세 연구 참여 아동이 선호하는 그림책의 종류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동이 선호하는 그림책의 특성을 아동의 경험으로부터 추출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기술 방식과 해석학적 접근 방식을 따른다. 현상학적 연구는 여러 개인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18]. 본 연구는 아동이 장르가 다른 여러 그림책에 대해 어떠한 선호 반응을 보이는지를 탐색하였다. 이 현상학적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장르가 다른 그

그림책들에 대해 보이는 선호 반응을 기술하는 것이다. 해석학적 접근은 관찰과 면담을 통해 사실이나 이론에 대한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연구이다[19].

개인의 체험을 그대로 기술하고자하는 현상학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 수집의 방법은 면담이다[20]. 면담은 개인이 참여하는 현실에서의 주관적인 체험을 그대로 기술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다[21]. 면담은 현상을 모두 경험한 5명에서 25명의 개인들과 진행하도록 권장된다[20]. 이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는 각 연령별로 15명씩을 기준으로 하였다. 면담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의 과정에서 보이는 아동의 반응과 응답은 모두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집, 기록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43명을 면담하고 최종 34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처음 수집한 6세 25명, 9세 18명의 녹음 자료와 면담 기록 자료 중에서 면담의 질적 수준에 따라 분석 자료를 선택했다. 이야기 그림책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 경우, 연구도구인 그림책들과 무관한 이야기를 한 경우, 책의 표지를 보면서 새롭게 이야기를 지어내는 등 아동이 제시한 그림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적으로 6세 25명 중 16명, 9세 18명 중 18명의 자료를 연구 자료로 정리하게 되었다.

1. 연구 참여자

아동이 선호하는 그림책의 특성과 연령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6세와 9세 아동을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그림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읽은 그림책들과 관련하여 호오와 그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은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6세와 9세 아동을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첫째, 책을 읽고 이해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을 고려했다.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을 하는 등의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한 연령[22]이어야 했다. 그래서 학령기 이전의 아동 중 가장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한 6세를 연구 참여자로 하였

다. 또한 학교에 들어가면 아동들은 그들이 새롭게 속하게 된 사회문화적 집단인 학교 상황에 적합한 의사소통 역량을 학습하게 된다[23]. 학교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 9세 아동은 면담자와의 의사소통에 능숙해 질 뿐 아니라 텍스트와도 좀 더 수준 높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9세 아동은 학교 수업 중 국어 교과에서 그림책을 풍부하게 경험하고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의도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기 때문에 6세 아동과는 다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독서와 관련 된 조건들의 변화를 고려했다. 독서와 관련 된 조건에는 독서 수준, 독서 태도, 독서 자료의 변화가 포함된다. 독서 수준 역시 단계별로 질적 변화를 겪는다는 점에서 발달적이다[24]. 독서 수준의 단계가 무 자르듯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읽기에 능숙해지고, 교육기관의 경험이 더해지면서 연령에 따라 그림책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혜승, 서수현(2010)이 밝힌 바, 우리나라 초등학교생들은 2학년울 기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읽기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연구 참여자의 선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책 읽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림책을 주로 보지만 3학년이 되면 이야기책을 읽는 아동 독자가 늘어나고, 4학년이 되면 대부분 이야기책 형태의 책을 읽는다고 한다[25]. 9세는 그림책의 아동 독자로서는 최고령에 속하며 읽기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때이다. 그림책을 가장 익숙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한편 그림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독서와 관련된 조건이 상이한 6세와 9세를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성별 거주 지역, 월령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모두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림책을 읽고 관련된 면담을 진행하는 데에 거부감이 없는 아동들로 교육 기관에서 추천을 받았다. 그 중 부모와 아동의 동의를 얻은 아동들이 면담 대상이 되었다. 최종 연구 참여자는 면담 결과에서 답변의 충실성에 준하여 선별하였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성별에 따라서는 언어 발달이 상대적으로 빠른 여아들에게서 충실한 답변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지만 성별의 균형 보다는 의미 있는 면담 결과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 만6세 참여 아동

	이름	거주지	성별	월령
1	KKS	서울	남	72
2	PPK	서울	여	77
3	LJS	서울	남	81
4	MJH	서울	남	70
5	KTY	서울	여	70
6	HKY	서울	여	75
7	LSJ	서울	남	81
8	YHR	서울	여	76
9	KJH	경기	여	76
10	OEK	서울	남	82
11	LYE	서울	여	76
12	SDH	서울	남	60
13	CJA	서울	여	63
14	OHS	서울	남	72
15	JSE	서울	여	69
16	KSR	경기	여	81
6세 연구 참여자	성별	인원	월령평균	
	남	7	74	
	여	9	73.6	
	계	16	73.8	

표 2. 만9세 참여 아동

	이름	거주지	성별	월령
1	PJY	서울	남	116
2	LYH	서울	남	115
3	LHE	서울	여	108
4	JHH	서울	여	115
5	KRW	서울	여	112
6	KCY	서울	여	109
7	SES	서울	여	112
8	CSB	서울	여	116
9	OES	서울	여	115
10	LYW	서울	여	118
11	PJW	경기	여	108
12	LDY	경기	남	112
13	HD	경기	남	119
14	KKM	경기	남	108
15	KSY	경기	여	109
16	RHY	경기	여	111
17	AHW	경기	남	110
18	LKE	경기	여	114
9세 연구 참여자	성별	인원	월령평균	
	남	6	113.33	
	여	12	112.25	
	계	18	112.79	

2.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다음의 몇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선택하였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동에게 품위 있고 수준 높은 예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림책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에 현은자(2005)[26]를 참고하여 그림책으로서의 완성도가 높은 그림책들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이야기 그림책, 옛이야기 그림책, 시 그림책, 정보 그림책의 장르적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림책이어야 했다. 그림책의 장르는 아동이 좋아하는 그림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령 특성도 중요한 기준이었다. 6세 아동이 집단으로 읽을 때에 무리가 없고, 단기간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내용과 인상을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과 권수여야 했다.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아동들도 그림책의 글과 그림을 충분히 즐긴 후에 그림책에 대한 선호를 표현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림책의 등장인물은 ‘토끼’로 통일했다. 인물은 아동이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소로 꼽힌다[27]. 인물을 통일하여 인물에 대한 선호가 그림책에 대한 선호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택한 연구 도구와 그림책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연구 도구 그림책 목록

	장르	제목	저자	출판사
1	이야기	내 토끼 어딴어?	모 윌렘스	살림어린이
2		도둑맞은 토끼	클로드 부종	비룡소
3	옛이야기	토끼와 호랑이	이현진	사계절
4	시	시리둥둥 거미둥둥	권윤덕	창비
5		잘 자요, 달님	클레먼트 허드(그림)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글)	시공주니어
6		정보	토끼	프리벨 자연관찰 4. 땅에 사는 동물

표 4. 연구 도구 그림책 내용

	제목	줄거리
1	내 토끼 어딴어?	주인공 트릭시는 꼬마토끼 인형을 친구들에게 보여 줄 생각에 틀떠 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소나도 같은 꼬마 토끼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상에 하나 뿐인 줄 알았던 꼬마 토끼가 또 있다는 것에 마음이 상한 친구들은 서로 자기 토끼가 더 좋다고 다투다가 선생님께서 토끼를 빼앗기고, 집에 돌아갈 때에 돌려받는다. 깊은 밤이 되어서 꼬마 토끼가 바뀐 것을 알아차린 트릭시와 소나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한 밤 중에 길에서 만나 자기의 토끼를 되찾고 기뻐하며 단짝 친구가 된다.

2	도둑맞은 토끼	엄마 여우는 토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기 여우에게 토끼를 보여주고 싶어 아기 토끼 자노를 잡아간다. 엄마 여우는 아기 여우에게 토끼에 대해 가르치고, 토끼 귀를 잡는 연습을 하고 있으라고 이르고서는 밖으로 나간다. 아기 여우가 자노의 귀를 잡는 연습을 하다가 자노를 놓치면서 잡기 놀이가 시작되고, 그렇게 아기 여우와 아기 토끼는 친구가 된다. 얼마 여우가 아기 여우에게 내일이면 토끼를 먹게 될 것이라고 무섭게 이리저 아기 여우는 밤을 틈타 자노를 놓아준다. 그렇게 자노는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한밤중 들판에서는 토끼와 여우가 정신없이 노는 그림자가 보인다.
3	토끼와 호랑이	토끼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에게 돌을 띄어라고 속이고, 물고기를 낚게 해주겠다고 꼬리를 얼어붙게 하고, 참새구이를 먹게 해주겠다고 하고서는 불을 피워 호옴이를 타게 한다. 기사회생으로 살아난 호랑이는 토끼를 잡으려 하고, 토끼는 꼭꼭 숨었다가 가끔 호랑이를 골려주려 나온다.
4	시리둥둥 거미동동	전래동요를 바탕으로 한 그림책이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녀인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긴 하루를 까만 돌담의 거미에서 출발하여 토끼, 까마귀, 하늘, 바다 그리고 싶은 것은 엄마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꼬리따기' 라는 말놀이로 표현하였다.
5	잘 자요, 달님	커다란 초록방 안에 전화기 하나 빨간 풍선 하나, 그림 속에서는 암소가 달을 뛰어넘고 의자에 앉아 있는 곰 세 마리, 초록방 안에서 잠을 이루는 사물들을 소개한 그림책이다. 저녁 7시, 일찍 잠자리에 든 아기 토끼가 커다란 초록 방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잘 자요' 라는 인사를 한다.
6	토끼	이야기보다는 주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는 그림책으로 '토끼' 의 생애와 먹이, 습성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3. 자료 수집

3.1 연구 도구의 제시

혼자 그림책을 보기 어렵고, 한꺼번에 많은 그림책을 본 후 각 그림책 내용이나 특성을 분리하여 기억하기 어려운 6세 아동은 그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았다. 담임교사는 2주 동안 그림책 읽기 시간이나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활용하여 하루에 평균 2~3권씩 연구 도구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그래서 면담 전 2주 동안 아동은 총 6권의 장르가 다른 그림책을 2번 이상 접할 수 있었다. 그림책을 읽어주는 순서는 무작위로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랐다. 6세 아동들은 기관에서 대집단으로 그림책을 함께 보는 데에 익숙하므로 자연스럽게 그림책을 접하고 기억할 수 있었다. 아동들이 제시한 그림책들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그림책은 적어도 각 2회씩 반복해서 읽어주도록 했다[14].

9세 아동은 학급 담임교사와 방과 후 담당 교사가 일주일 이내에 하루에 2~3권씩 읽어주고 면담을 약속한 날짜에 담당 교사가 있는 방에서 아동이 스스로 그림책을 한번 씩 더 읽은 후 면담을 진행했다. 6세 아동에게

집단에서 그림책을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과 같이 문자에 익숙해지고 스스로 책을 읽기 시작하는 학령기 아동에게는 혼자 책을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림책을 읽어주는 기간에는 기관의 도서 영역에 연구 자료 그림책들을 비치하여 교사가 읽어주거나 읽도록 안내하지 않을 때에도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그림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 아동과의 면담

면담의 주요한 장점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관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18]. 면담은 아동이 선호하는 그림책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택된 방법이었다. 장르가 다른 다양한 그림책을 읽은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좋아하는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림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가장 재미있었던 그림책과 재미없었던 그림책, 그리고 그 이유를 묻고, 필요한 경우 부가적인 질문을 더하는 반구조화 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을 진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안내 질문을 가지고 면담에 임하지만 면담의 상호작용 중에 발생하는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는 부분에서는 개방적으로 임해야 한다[19]는 원칙에 충실하고자 했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자가 아동과 마주하는 순간부터 아동이 자리를 뜨는 때까지 녹음되었다. 면담을 하는 중에 아동이 보이는 비언어적 단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비디오 녹화를 고려하였으나 보호자 동의의 문제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녹음을 하는 대신 아동의 행동,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반응과 노래를 하거나, 망설이는 듯한 말끝 흐리기 등의 비언어적 특성은 현장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3.3 자료의 분석

아동과의 면담을 녹음한 파일들은 전사하여 자료화 하였다. 주요 분석 자료는 녹음 파일과 전사 자료였고, 현장의 메모와 교사 또는 보호자와의 대화는 부가 자료로 필요시 활용되었다.

전사한 자료는 주제에 따라 약호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주제별 약호화는 연구자가 전사된 자료에서 특정 부분이 어떤 특정한 주제나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고 느낄 때, 연구자가 그 텍스트의 특정한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주제로서 이름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28]. 약호화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인 접근을 택했다. 이는 자료가 수집될 때까지 어떠한 자료도 미리 약호화하지 않고 철저히 자료에 근거하여 약호화의 주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그림책에 대한 선호와 관련된 아동의 반응으로부터 주제를 추출하여 약호화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추출된 약호는 ‘이야기 선호’, ‘문학적 반응’, ‘명확한 선호 표현’이었다.

III. 연구 결과

1. 만 6세 연구 참여 아동이 선호하는 그림책의 종류와 이유

만 6세 연구 참여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그림책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떤 그림책이 가장 재미있었느냐(혹은 가장 좋으냐)는 질문에 여러 권을 고르는 아동이 많았고 가장 재미없는 그림책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한 아동도 많았다. 아동들이 선호하는 그림책을 복수 응답한 결과 옛이야기 그림책인 ‘토끼와 호랑이’가 9회, 이야기 그림책인 ‘내 토끼 어딴어’ 6회, ‘도둑맞은 토끼’ 6회, 국내 시 그림책인 ‘시리동동 거미동동’ 4회, 정보책 ‘토끼’ 4회, 번역 시 그림책 ‘잘자요 달님’ 1회로 조사되었다.

연구 참여 아동들은 서사성이 있는 장르의 그림책을 선호하였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플롯 또는 사건,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등장인물과 같은 그림책의 문학적 요소가 선호의 이유로 설명되었다.

재미있었던 그림책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그림책은 ‘토끼와 호랑이’였다. 아동들은 선호이유로 ‘토끼와 호랑이’의 사건을 언급하였다.

아동4: 토끼가 땅에 불을 태우는 게 재미있어요.

아동5: 토끼와 호랑이는요 호랑이 꼬리 떼진 게 재밌었어요

아동11: 요거는 속인 거니깐 웃기고.

아동13: 이거 이야기가 웃겼어요.

아동14: 토끼가 호랑이를 골려주는 게 재미있었어요.

아동15: 왜냐면 토끼를 잡주는 방법이 엄청 재미있었어요.

아동16: 토끼와 호랑이는 이빨 부러지는 게 재미있었어요.

다음으로 선호한다고 응답한 그림책은 ‘내 토끼 어딴어’, ‘도둑맞은 토끼’였다. 아동들은 선호이유로 플롯과 등장인물, 그림책의 특정 장면에 대해 언급하였다.

아동1: 토끼가 사라져서 만나니까 좋아서. 그래서 좋아서 잠도 잘 잘 수 있어요.

아동2: 이거는 미국 이야기 인데, 이게 트릭시가 주인공이라서 진짜 재미있었어요.

아동3: 토끼를 바꾸는 게 재미있었어요.

아동4: 친구가 아니었다가 갑자기 단짝친구가 되니까 재미있었어요.

아동5: 와작와작 씹어 먹는 게 나오는 게 재미있었어요.

아동12: 애네 둘이(아기여우와 아기토끼) 재밌어요.

아동16: 밤에 그림자들이 나오는 게 재미있었어요.

이처럼 연구 참여 아동들은 즐거리가 있는 그림책을 선호하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플롯 또는 사건,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등장인물과 같은 그림책의 문학적 요소 속에서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서사성이 있는 그림책을 선호하기는 했지만, 6세 아동들 중에는 시 그림책인 ‘시리동동 거미동동’과 정보 그림책인 ‘토끼’를 좋아한다고 답한 아동도 있었다. 아동들은 ‘시리동동 거미동동’을 선호하는 이유로 말의 맛을 살려내는 운율과 리듬 같은 음악적 표현, 사용된 단어, 간결성과 같은 시 그림책의 언어적 표현에 대해 언급하였다.

아동9: 노래니까요. 저 원래 노래 좋아해요. 저는 요

여기에서 좋아하는 거 있어요. 거미줄하고 그리고 거미하고 토끼, 까마귀 그리구 나는 거, (중략) 엄마의 마음도 좋아해요. 여기에 좋아하는 거 진짜 다 예요. 바위도 좋아해요.

아동10: 제일 쉬워가지고요. 동시만 외우면 돼서.

아동11: 노래하는 거니까 좋아요.

정보 그림책인 ‘토끼’를 선호하는 이유로 대상의 귀여움, 토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라고 언급하였다.

아동1: 토끼가 너무 귀여우니까요.

아동12: 이게 귀엽거든요.

아동16: 토끼는 눈 색깔도 달라서요. 그리고 안아주는 법도 나와서 좋아요.

정보 그림책인 ‘토끼’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아동 4명 중 1명은 ‘토끼’를 선호하는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이유를 답한 3명 중 2명이 선호 이유로 그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서사성이 있는 그림책을 선호하는 이유로 그림책의 문학적 특질이 반영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정보 그림책에서는 그림의 매력에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 그림책의 성격을 정확히 반영한 응답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응답으로 볼 때, 아동들은 시 그림책 뿐만 아니라 정보 그림책의 장르적 특성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장르적 특성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 그림책인 ‘잘자요 달님’을 좋아하는 그림책으로 선택한 아동은 단 한 명이었으며 5명의 아동이 비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비선호의 이유로 등장인물이 없어서, 줄거리가 없어서, 색이 앞부분에만 나와서라고 언급하였다.

아동6: 사람이 안 나오고 바탕만 나와서 재미없어요.

아동11: 색깔이 앞에만 있고 글씨도 별로 없어서요.

아동12: 잘 자요만 나와서 재미없었어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 그림책의 경우 단어와 단어의 연결을 이해할 수 있는 국내 그림책은 선호하였지만, 단어의 연결성, 운율, 리듬을 인지할 수 없는 국외 번역 그림책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만 9세 연구 참여 아동이 선호하는 그림책의 종류와 이유

만9세 연구 참여 아동들은 그림책에 대한 선호가 분명했다. 만 9세 아동들이 선호하는 그림책을 복수 응답한 결과 이야기 그림책인 ‘도둑맞은 토끼’ 12회, ‘내 토끼 어딴?’ 4회, 옛이야기 그림책인 ‘토끼와 호랑이’가 4회, 시 그림책인 ‘시리동동 거미동동’ 1회, 정보 그림책 ‘토끼’ 0회, 시 그림책 ‘잘자요 달님’ 0회로 조사되었다.

이 연령의 아동들 역시 서사성이 있는 장르의 그림책을 선호하였다. 6세 연구 참여 아동들과 차이가 있다면 6세 연구 참여 아동들은 서사성이 없는 장르의 그림책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었던 데에 반해 이 연령의 아동들은 서사성이 없는 장르의 그림책에 대해서는 비선호 반응이 뚜렷했다는 점이다. 서사성이 없는 그림책 중에 좋아하는 그림책으로 선택된 것은 시 그림책인 ‘시리동동 거미동동’ 밖에 없었고, 그것도 단 한 명만이 이 그림책이 재미있었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연구에 참여한 9세 아동은 서사성이 있는 그림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만9세 연구 참여 아동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림책은 ‘도둑맞은 토끼’였다. 아동들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환상적 요소를 작가가 이야기로 만든 그림책의 특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선호 이유로 플롯, 등장인물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아동1: 여우가 토끼랑 같이 놀고 그런 게 신기해서요.

아동4: 여우랑 토끼가 친하게 지내는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아동5: 여기서는 원래 새끼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토끼랑 놀고 마지막엔 토끼를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아동6: 요즘 어른들도 상상력이 풍부한가 봐요. 토끼랑 여우랑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놀고 그러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현실적인 순 없지만.
 아동8: 도둑맞은 토끼 이야기가 진짜 같아서 재미있었고 여우가 토끼를 안 풀어줬을 때 흥미진진했어요. 토끼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해서요.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진짜 같았어요.

아동9: 여우하고 토끼하고 친구가 되는 게 좀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제일 재미있었어요.

아동13: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동물이 나오고 약간 실감나서요.

또한 나와 다른 독자를 인식하면서 타인에게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이야기 줄거리와 제목의 적절성, 작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담고 있는 그림책의 주제 등과 같은 문학적 요소에 대해 언급하였다.

아동15: 도둑맞은 토끼를 다른 친구들도 읽으면 재밌어 할 것 같고, 도둑맞은 토끼라는 이야기가 제목도 알맞아요. 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동 16: 막 실감나는 말을 하구요. 저는 나쁜 애들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나쁜 애들이 착하게 되는 이야기구요. 아기 여우가 다행히도 나쁘게 되지 않고 토끼는 살아나서.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이 나게 돼서 좋아요.

이야기 그림책인 ‘내 토끼 어딴어’를 선호하는 이유로도 아동들은 역시 플롯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아동3: 뭔가 바뀌는 게 재미있어서요.

아동11: 처음에 싸웠는데 다시 친해져서요.

옛이야기 그림책인 ‘토끼와 호랑이’를 선호하는 이유로도 플롯과 사건을 언급하였다.

아동7: 피부리면서 도망치는게요 재미있어서요.

아동12: 토끼가 피워서 나가는 게 재밌고.

아동17: 토끼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피

를 썼는데 그 피에 속은 호랑이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시 그림책인 ‘시리동동 거미동동’은 선호 이유로 ‘사람이 제비 위에 타는 그림’이 재미있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정보책 ‘토끼’와 시 그림책 ‘잘자요 달님’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그림책 ‘잘자요 달님’은 7명의 아동이 ‘같은 말만 나온다’, ‘단순해서 지루하다’, ‘문장이 짧다’는 이유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동5: 너무 많은 것을 다 잘 자요 해서요.

아동6: 그냥 너무 좀 빗대어 표현한 말도 없고 너무 재미없게 만들었어요.

아동7: 좀 지겨워요. 그냥 잘 자요. 뭐, 잘 자요 이렇게만 나와 가지고 별로.

아동9: 문장이 없고 너무 짧아서요.

아동12: 글이 짧고 똑같은 것만 거의 계속 나오니까

아동13: 너무 짧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하고 이야기 같기도 해서 애매해서요.

아동15: 제 나이랑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보 그림책 ‘토끼’는 5명의 아동이 ‘설명하는 게 지루하다’고 언급하였다.

아동4: 설명해 주는 게 지루했어요.

아동10: 토끼의 생김새나 그런 것도 다 알고 있고 설명해 주는 거라 뭐가 재미가 없었어요.

아동16: 저는 설명적인 이야기를 조금 싫어해요.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9세 연구 참여 아동들은 6세 연구 참여 아동들보다 더 즐거기가 있는 그림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림책의 그림과 같은 예술적 요소보다 문학적 요소에 더욱 폭넓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 그림책과 정보 그림책의 장르적 특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그림책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책에 대한 선호가 6세보다 더욱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6세, 9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장르를 중심으로 아동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선택하게 하고 그 그림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분석하였다.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6세 아동은 옛이야기 그림책, 이야기 그림책, 정보그림책과 국내 시 그림책 순으로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3-6세 아동들이 선호하는 그림책의 장르는 전래동화, 환상동화, 사실동화 즉 이야기 그림책이라는 김선옥 외(2006)[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5세 정도 아동은 전래동화를 선호한다는 신현숙(2000)[27]의 연구와 유아와 아동들은 사실적인 글보다는 이야기(story)가 있는 책을 좋아하며 특히 옛이야기나 환상그림책을 선호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9][29-34]과도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6세 아동은 발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고가 유연하고 창의력이 풍부한 시기이다[8]. 어린 연령의 유아는 이전에 지각된 심상들에 의해 환상이 제한을 받는 반면 나이 든 유아는 과거의 경험을 복잡하게 재구성하여 완전히 새로운 심상을 창조해냄으로써 환상이 더욱더 발달하기 때문에[35] 상상력이 발휘되는 서사적 형태 즉, 이야기가 있는 형태의 그림책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권선징악의 주제를 다루는 옛이야기 그림책은 주제를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8] 연구 결과 6세 아동은 그림책의 주제보다 흥미로운 줄거리가 주는 즐거움에 더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아무리 교육적인 요소가 담겨있다 하더라도 이야기가 재미없으면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읽혀지는 것이 어렵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이야기 그림책보다는 작지만 비서사적인 정보그림책도 선호한다는 반응이 나와 6세 아동은 이야기가 있는 그림책 외에도 정보와 사실, 개념 등을 담고 있는 설명문과도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들도 비서사적인 정보책을 좋아하며 정보책 읽기를 통해 개념의 이해와 학습이 가능하

다는 선행연구[36][37]와 흐름을 같이한다. 국내 시 그림책의 경우 정보그림책과 동일하게 선호된 반면에 번역 시 그림책의 경우 연구 참여 아동들에게 선호되지 않았다. 번역 시 그림책의 경우 말의 맛을 살려내는 문체나 운율과 같은 언어적 표현, 사용된 단어, 간결성과 같은 시 그림책의 특성을 우리말로 충분히 살릴 수 없으므로 아동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번역 시 그림책의 경우 영문 원본과 번역문을 함께 제시하거나 최대한 말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번역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만6세 아동은 모든 장르의 책에서 그림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 아름다움이나 일러스트레이터의 표현기법, 공간 구성과 같은 예술적 요소보다는 이야기의 플롯 또는 사건, 문체나 언어적 표현, 등장인물과 같은 문학적 요소에서 선호 이유를 말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 그림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주로 플롯, 인물, 주제와 같은 문학적 요소에 대한 것이라는 김선옥 외(2006)[7]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만6세 아동은 그림을 위주로 책을 읽기보다는 이야기의 줄거리에 초점을 두고 잘 짜여진 플롯을 통해 이야기를 이해하고 즐기고 있음[7]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아동은 선호이유, 비선호이유로 시 그림책, 정보그림책의 특성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므로 이 시기부터 그림책 장르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시기부터 장르별 텍스트 구조의 특징을 인지하고 있다는 박진희(2009)[3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그림책을 사용할 때 장르특성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만9세 연구 참여 아동은 이야기 그림책, 옛이야기 그림책, 국내 시 그림책 순으로 선호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만 9세 아동은 6세에 비해 그림책에 대한 선호도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6세보다 9세 아동들은 독립적인 읽기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문학에 노출되면서 자신만의 선호가 보다 분명[39]해진 것으로 보인다. 만9세 아동은 이야기 그림책인 '도둑맞은 토끼' (12회)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로 플롯, 선호하는 등장인물, 이야기 줄거리와 제목의 적절성, 작가의 가치관과 세계

관을 담고 있는 그림책의 주제를 들어 만6세 아동보다 폭넓은 문학적 요소를 탐색하고 그 속에서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만9세 아동은 이야기 그림책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야기 속의 갈등에 공감하고 동일시하며 긴장감을 가지고 흥미로워[40]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만9세 아동에게는 그림책의 이야기 갈등구조, 플롯, 등장인물, 전하고자 하는 주제 등이 평면적이 아닌 입체적인 작품일 때 더욱 읽는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정보그림책 ‘토끼’와, 번역 시 그림책 ‘잘자요 달님’은 한 명도 선호하지 않았으며 국내 시 그림책 ‘시리동동 거미동동’은 단 1명만이 선호하였다. 아동들은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정보 그림책의 경우 ‘글이 설명하는 게 지루하다’, 시 그림책은 ‘글이 짧고 똑같은 것만 거의 계속 나온다.’와 같이 그림책의 장르적 특성을 말하였다. 따라서 만9세 아동은 장르적 특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선호와 비선호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 그림책의 경우 아동들에게는 선호되지 않았지만 연령이 어린 만3세는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1]. 시 그림책은 길이가 짧으면서 리듬과 운율의 반복, 의성어, 의태어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유아시기에 더 적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정보그림책의 경우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이야기책보다 더 선호된다는 Mohr(2006)의 연구 결과[11]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9세 아동들은 설명적인 텍스트를 지루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령의 아동에게 설명적인 내용을 나열하는 백과사전식 정보책의 효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책의 성격이 강한 교과서에 익숙한 아동들이 그림책을 교과서처럼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정보 그림책은 ‘토끼’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토끼’ 만9세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얻는 즐거움을 주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만9세 아동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자연현상, 과학 실험 등의 보다 고차원의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보 그림책으로 추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만6세 아동은 만9세 아동보다 비교적 다양한 장르의 그림책을 선호하며 그림책

의 예술적 요소보다는 문학적 요소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에 참여한 만9세 아동은 그림책 장르의 특징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선호도가 명확하게 나타나 이야기 그림책, 옛이야기 그림책을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세 아동과 마찬가지로 그림책의 예술적 요소보다는 문학적 요소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아동들이 책에 대한 선호가 분명해지는 시점을 밝혔으며, 유아들이 장르를 불문하고 그림책에서 글보다 그림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는 달리[3][32], 만 6세 이상 아동들에게는 그림책의 그림에 집중하기보다는 사건의 논리적인 패턴과 배치가 강조되는 입체적인 플롯의 그림책을 제공하는 것이 흥미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동의 책 선호도는 책의 선택과 책읽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고착되기 전에 유아 시기부터 다양한 장르의 그림책에 충분히 노출시켜 다양한 문식성 기술과 전략을 발달시키고[10],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시각에서 재미있고 적절한 그림책을 제시해주어 아동기에 들어서서도 책에 대한 흥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가 아닌 직접적인 면접을 통해 그림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대상의 수가 적어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연구 대상을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장르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그림책 1권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각 장르에 따라 1권의 그림책을 선정함으로써 장르가 아닌 그림책에 포함되어 있는 배경, 등장인물, 판형,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다른 변인을 최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장르별로 여러 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여 아동의 선호반응을 분석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그림책의 장르 이외에도 그림책을 구성하는 다

양한 요소가 선호에 미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그림책 선호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서정숙, “그림책의 교육적 활용 양상과 문제점,”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권, 제1호, pp.99-113, 2000.
- [2] O. N. Saracho and B. Spodek, “Families’ Selection of Children’s Literature Books,”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7, pp.401-409, 2010.
- [3] 김양선, *소그룹 그림책 읽기에서 그림책에 대한 5세 유아의 반응*,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7.
- [4] 유동관, “어린이그림책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형식에 대한 어린이의 선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0호, pp.165-175, 2011.
- [5] 김민정, “한국 스테디셀러 그림책의 특성,”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5권, 제3호, pp.141-164, 2014.
- [6] L. R. Sipe, “Picturebooks as aesthetic objects,” *Literacy Teaching and Learning*, Vol.6, No.1, pp.23-42, 2001.
- [7] 김선옥, 윤정빈, 지은주, 유승희,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그림책 선호 경향,”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11호, pp.291-318, 2006.
- [8] 이문정, 최윤정, 곽아정, “유아들이 선호하는 그림책의 특성,”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pp.63-79, 2013.
- [9] 김민정, *유아의 연령 및 선호하는 동화 장르에 따른 소망에 대한 믿음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0] 김정화, “유아의 그림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린이미디어연구*, 제8권, 제1호, pp.1-17, 2009.
- [11] K. A. Mohr, “Children’s choices for recreational reading: A three-part investigation of selection preferences, rationals, and processes,” *J. of Literature research*, Vol.1, pp.80-104, 2006.
- [12] 유동관,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나는 형태별 표현양식에 대한 남녀어린이의 반응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127-136, 2013.
- [13] 유동관, “그림책 화면에서 나타나는 은유적 표현 방식에 대한 어린이의 인지반응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7호, pp.198-207, 2010.
- [14] S. Shine and N. L. Roser, “The Role of Genre in Preschooler’s Response to Picture Books,”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Vol.34, No.2, pp.197-254, 1999.
- [15] 심향분,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교사 발문 탐구: 픽션과 논픽션을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pp.1-28, 2014.
- [16] K. J.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IVP, 2003.
- [17] 김준오, *문학자와 장르*, 문학과지성사, 2000.
- [18] J. A. Hatch, *교육상황에서 질적 연구 수행하기*, 학지사, 2008.
- [19] 이종규, *질적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2007.
- [20] J. W. Creswell,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2판)*, 조홍식 외 공역, 학지사, 2010. (원본 2007년 출판)
- [21] 고미영, *질적연구방법*, 청목출판사, 2012.
- [22] 이차숙, *유아언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5.
- [23] E. Hoff, *언어발달*, 시그마프레스, 2007.
- [24] P. A. Alexander, “The Path to Competence: A Lifespan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Reading,” *J. of Literacy Research*, Vol.37, No.4, pp.413-436, 2005.
- [25] 정혜승, 서수현,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읽기 태도 양상 분석,”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pp.181-195, 2010.
- [26] 현은자, *내 아이가 꼭 읽어야 할 좋은 책 110*, 예

영커뮤니케이션, 2005.

[27] 신현숙, *그림 이야기 장르에 따른 만3세와 5세 유아의 그림책에 대한 반응 비교*,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8]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아카데미프레스, 1998.

[29] 현은자, 김세희, *그림책의 이해 I*, 사계절, 2005.

[30] 서정숙, 최현주, “그림책 장르별 만 3세 유아의 반응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pp.1-23, 2014.

[31] 정남미, “유아문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유아, 교사, 학부모의 동화 선호도 조사,” *송의논집*, 제22권, pp.125-150, 1998.

[32] 홍선희, *그림책 장르에 따른 유아의 언어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의 연령별 비교*,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3] T. Merisuo-storm, “Girls and boys like to read and write different texts,”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50, No.2, pp.111-125, 2004.

[34] G. Moss and J. W. McDonald, “The borrowers: Literacy records as unobtrusive measures of children’s reading preferences,” *J. of Research in Leading*, Vol.27, pp.401-412, 2004.

[35] 김재은, *유아발달심리*, 창지사, 1997.

[36] C. A. Donovan, “First grader’s impressions of genre-specific elements in writing narrative and expository text,” In D. J. Leu, C. K. Kinzer, & K. A. Hinchman(Eds.), *Literacy for the 21st century: Forty-fifth yearbook of the national reading conference*(pp.183-194), Chicago, IL:National Reading Conference, 1996.

[37] L. R. Sipe, “Children’s Response to Literature: Author, Text, Reader, Context,” *Theory Into Practice*, Vol.38, No.3, pp.120-129, 1999.

[38] 박진희, *이야기 그림책과 정보 그림책 장르의 텍스트 구조와 특징에 대한 유아의 이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39] C. Haynes. “Explanatory power of content for identifying children’s literature preferences,”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Vol.49, No.12, 3617A. (UMI No. DEW8900468).

[40] 박명주, *아동을 위한 연령별 동화책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저 자 소 개

박 소 윤(So-Yun Park)

정회원



- 2005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문학석사)
- 201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철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동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아동문학, 유아언어교육

김 민 정(Min-Jung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연세대학교 국어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7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철학박사)
- 2012년 1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 아동문학, 유아언어교육